

黃元御 의학사상의 도서역학적 연구

김영목*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병리학교실 & 한국전통의학연구소

Study for Medical Thinkings of Huang Yuan-Yu on Tu Shu Yi

Yeong Mok Kim*

Department of Oriental Path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 Research Cente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his study makes clear Huang Yuan-Yu(黃元御)'s medical thoughts Yi-philosophically. Yi-philosophy(易學) since ancient times is occupied by fundamental problems of various fields of Oriental Science. Confucian Medicine Reseachers of Zhang Jie-Bin(張介賓), Zhang Nan(章楠), Zhu Zhen-Heng(朱震亨) was seriously affected by Yi-philosophy(易學) and Confucianism(儒學). But I don't think that the majority of their medicine theories are occupied by Yi-philosophy(易學) and Confucianism(儒學). But Huang Yuan-Yu(黃元御) studied medicine thoughts on the basis of Tu Shu Yi(圖書易) in almost whole medicine theories and clinical contents. Therefore this study researched medical thinkings of Huang Yuan-Yu(黃元御) on Yi-philosophical medical viewpoint Tu Shu Yi(圖書易)-scientifically. Especially in this paper the author examined a characteristic point in medical thoughts of Huang Yuan-Yu(黃元御), the difference of existing medicine on Nei-Jing(內經) and Yi-medicine of Huang Yuan-Yu(黃元御), a commonness of medicine principles of Huang Yuan-Yu(黃元御) and Li Ji-Ma(李濟馬)), medicine theories of Huang Yuan-Yu(黃元御) on Tu Shu Yi(圖書易) and a background of Yi-philosophical medical standpoint. The results wa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Huang Yuan-Yu(黃元御)'s standpoint on five phase is that the relation of earth and wood · fire · metal · water is form and use(體用). Huang Yuan-Yu(黃元御) insists that the earth represents existence itself and wood · fire · metal · water is concepts that represents actual states. Second, the concept of Four-Constitution of Huang Yuan-Yu(黃元御) and Li Ji-Ma(李濟馬) is same. Third, Huang Yuan-Yu(黃元御) doesn't have a standpoint of five-phase on Nei-Ching Medicine, but a standpoint of five-phase on Yi-philosophy. Fourth, water, fire, metal, wood is Four-Constitution that middle qi transformed. Fifth, the middle qi is yang-earth and yin-earth of the spleen and stomach, the physiological function of four viscera is maintained by the movement of ascending and descending of yin and yang earth. Sixth, The middle qi is main role of Four-Constitution. Exchanging of water and fire and the movement of ascending and descending of metal and wood depends on the earth. Seventh, generally medicine researchers speak that human mind is a main role of psycho-function of heart, but Huang Yuan-Yu has the standpoint of spleen-stomach oriented seven emotions not human-mind oriented viewpoint. It represents that a existing thinking of heart-earth center is changed to medical viewpoint of spleen-earth center. Eighth, There is enough ground for controversy on where is the middle point of human in five viscera. Is that spleen or heart? Huang Yuan-Yu(黃元御) insists that the spleen and stomach is middle point, but the standpoint in Four-Constitution medicine of Li Ji-Ma(李濟馬) is that middle point is heart.

Key words : Huang Yuan-Yu(黃元御), Tu Shu Yi(圖書易), Li Ji-Ma(李濟馬), form and use(體用), Yi-philosophy(易學), Zhang Jie-Bin(張介賓), Zhang Nan(章楠), Zhu Zhen-Heng(朱震亨)

서 론

한의학에서 역학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성격은 최고의 원리가 擔持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항상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으며,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꾸준히 연구되고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韓醫學에서 易學의 지위는 고대의학에서부터 금, 원, 송, 명, 청대 의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 이로

* 교신저자 : 김영목,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bosong@wku.ac.kr, · Tel : 063-850-6840

· 접수 : 2009/02/11 · 수정 : 2009/03/02 · 채택 : 2009/04/09

인해 한의학의 연구방법은 물론 그 의학적 결과도 다양한 학설로 전개되어 왔다. 역학은 자연의 구조와 인간존재의 본질 그리고 원리를 일관하는 형이상학적 체계를 지향한다. 또한 역학의 학문적 기초는 자연의 정연한 질서와 그것을 근간으로 인간의 본질을 해석하려 하였다. 이로 인해 漢代 이후의 儒醫들의 학문 세계는 周易과 中庸을 근간으로 많은 의학적 이론을 형성되었다. “醫儒一道”¹⁾, “故曰天人一理者, 一此陰陽也。醫易同原者, 同此變化也。豈非醫易相通, 理無二致, 可以醫而不知易乎?”²⁾라 하여 역학과 유학의 사유체계와 방법론이 의학에 함축되어 기초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역학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이 없이 의학체계의 근본구조에 대한 올바른 파악이 불가능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專一한 역학적 사유체계로 의학을 해석하려 한 醫家가 黃元御이다. 황원어의 생애와 저서를 보면 3) 黃元御의 이름은 玉路이며, 字가 元御, 坤載이고, 號는 研農, 玉楸子이다. 清代 山東省 昌邑縣人으로 그는 『黃帝內經』, 『難經』, 『傷寒雜病論』에 주해를 하고, 黃帝, 岐伯, 扁鵲, 張仲景을 四聖이라하여 추송하였다.⁴⁾ 『素問懸解』, 『靈樞懸解』, 『難經懸解』, 『傷寒懸解』, 『金匱懸解』, 『四聖心源』, 『四聖懸樞』, 『傷寒說意』, 『素靈微蘊』, 『長沙藥解』, 『玉楸藥解』, 『周易懸象』, 『道德經懸解』 등의 著書를 남겼으나 『周易懸象』, 『道德經懸解』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⁵⁾

이전의 醫家들 중에 張景岳, 章虛谷, 朱丹溪 등 儒醫들의 의학에서 易學과 儒學의 영향은 그들의 醫說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황원어의 11종 저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의학이론과 임상내용에서 역학 특히 圖書易을 근간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역학적 의학관을 가진 황원어의 의학사상을 도서역학적으로 탐구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역학은 시대적으로는 선진역학, 한대역학, 송대역학, 청대역학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점서역학, 의리역학, 상수역학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에서 황원어는 시대적으로는 청대역학, 내용적으로는 상수역학의 영향 하에 있다고 본다.

황원어의 생존시기인 청대의 의학은 금원사대가의 유파를 계승한 명대를 주로 祖述하면서, 그 중에 다시 秦, 漢 또는 唐, 宋의 학설을 主宗으로 받드는 유파로 출현하였으며, 혹은 역대의 諸說을 추종하지 않고 스스로 旗幟를 세우고자 한 유파도 없지 않았다. 또한 청초에 고증학의 발흥에 영향을 받아 의학에서도

의학경전 본래의 면목을 궁구하여 금원이래의 各家의 學說을 벗어나 바로 往聖의 심법을 탐구하고자하는 경향도 있었다.⁶⁾ 황원어는 복고주의를 추구하였지만 다른 점이 분명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저자는 황원어의 의학사상의 독특한 점이라 할 수 있는 내경의학 전통의 기존학과 황원어의 역의학의 다른 점, 황원어와 이제마의 의학이론의 공통점, 하도, 낙서의 도서의학에서 차용한 황원어의 이학이론, 역학적 의학관의 배경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지금은 실전되었다고 알려진 『周易懸象』의 내용이 있으면 더 정확히 밝힐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게 느껴진다.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황원어의 저작을 중심으로 역학적 관점에서 해명하기로 한다.

본 론

“역학의 기본적인 표상형식은 ‘卦’, ‘象’, ‘義’의 세 단계를 포함한다. ‘卦’는 수학적인 모형이고, ‘象’은 경험적인 규칙이고, ‘義’는 우화적인 의미진술이다. 삼자간의 논리관계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역학연구자는 상수파와 의리파로 나누어진다. 漢代 이후의 역학연구는 의리와 상수의 두 가지 노선이 함께 나아가거나 주된 것과 부차적인 것을 번갈아 가며 발전해 왔으며,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융합된 적은 없었다. 현대 역학의 연구는 과학의 태도와 방법을 채택한 것으로 인하여 철학사상, 문자증 등의 발전을 이루었고, 인문역과 과학역의 양대 조류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과학적인 현대역학체계를 세우지는 못하였다.”⁷⁾ 역학은 과학역과 인문역의 영향을 동시에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존재구조가 신성과 물성의 합일체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동양의학의 특징인 인간을 심과 신이 동시적으로 품고 있는 것으로 볼때 인간존재를 표상하는 방법도 자연중심의 과학역과 심성중심의 인문역이 동시에 응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론에서는 황원어의 도서역학적 의학사상의 내용을 철학적, 의학적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하도낙서의 철학적 해명

『周易』 『繫辭上 十一』에 “天이 神物을 生하여 聖인이 이를 법칙으로 여겼으며, 天地가 변화하여 聖인이 이를 본받았다. 天이 象을 드리워서 吉凶을 보이니, 聖인이 이를 본뵈었으며, 河水에서 圖가 나오고, 洛水에서 書가 나와서 聖인이 이를 법칙으로 하였다.”⁸⁾라고 하여 河圖·洛書는 단순히 天生의 瑞祥의 神物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도리어 天地의 生成變化의 大道를 표상하며, 인사의 吉凶을 豫徵하는 동시에 天命을 承受하는 聖인이 效則해야 될 大法으로서의 의미가 더욱 중요시되었다.⁹⁾ 현재의 河圖·洛書의 圖象은 漢代以後에 여러 학자들을 거쳐 宋代 朱子

1) 『中國醫籍考』 「卷五十七 方論(三十五)」 “醫儒一道”
 2) 『類經圖翼』 「類經附翼卷一 醫易 醫易義」 “故曰天人一理者, 一此陰陽也。醫易同原者, 同此變化也。豈非醫易相通, 理無二致, 可以醫而不知易乎?”
 3) 『素問懸解』 「自序」 “玉楸子盛壯之年, 雍正甲寅, 時年三十。誤服庸工毒藥, 幸而未死。遂抱杜欽、褚稻之痛, 價檢漢後醫書, 恨其不通。通者, 思選真人《千金》一書而已。上溯岐黃, 伏讀《靈》《素》, 識其梗概, 乃悟醫源。至其紊亂錯訛, 未能正也。”
 4) 『四聖心源』 「四聖心源自敘」 “醫有黃帝、岐伯、越人、仲景四聖之書, 爭光日月。人亡代革, 薪火無傳, 玉楸子閻後世作者不達其意, 既解《傷寒》、《金匱》, 乃于己巳二月作《四聖心源》, 解內外百病, 原始要終, 以繼先聖之業。”
 5) 『醫學讀書志』 「卷下 國朝黃氏元御 四庫全書存目」 “素問懸解十三卷 靈樞懸解九卷 難經懸解二卷 傷寒懸解十五卷 金匱懸解二十二卷 傷寒說意十一卷 長沙藥解四卷 四聖懸樞四卷 四聖心源十卷 玉楸藥解四卷 素靈微蘊四卷 上書十一種, 昌邑黃元御撰。”

6) 홍인식 편역, 『중국의학사』, 동양의학연구원, 서울, 1984, p 298.
 7) 董光璧, 『제3회 국제역학 학술대회 주제 : 역학과 현대문명』, 21世紀의 易學與科學, 한국주역학회, 국제역학연합회, 2007, PP 1-17.
 8) 『周易』, 『繫辭傳上』, 十一章, “天生神物 聖人則之 天地變化 聖人效之 天垂象見吉凶 聖人象之 河出圖 洛出書 聖人則之.”
 9) 柳南相, 『正易의 圖書象數原理에 觀한 研究』, 『忠南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論文集』, 第VIII卷 2號, 1981, p. 186.

와 蔡元定の 『易學啓蒙』¹⁰⁾에서 완성된 것이다.¹¹⁾

河圖와 洛書의 기본구조를 보면 원의 개수는 數를 나타내며, ●은 陰數를, ○은 陽數를 표상한다. 河圖·洛書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는 數이며, 그 數의 공간적인 배열로서 象이 형성된다. 그러므로 數가 象보다는 더 근원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圖書의 의의는 數의 철학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철학적 상징성을 가진 數를 역학에서는 天數인 陽數, 地數인 陰數, 生數, 成數, 四象數로 각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河圖數는 一에서 十까지의 10個이고, 洛書數는 一에서 九까지의 9個인데 “天數는 一, 三, 五, 七, 九이며, 地數는 二, 四, 六, 八, 十이다. 이 天數 다섯과 地數 다섯이 각각 五位에 배치되어 陰陽의 숨이 이루어진다. 天數의 숨은 二十五이며, 地數의 숨은 三十이다. 무릇 天地의 數는 그 숨이 五十五로, 이것이 변화를 이루고 鬼神의 道를 행하는 所以이다.”¹²⁾에 의하면 耦數인 二·四·六·八·十은 地數로서 陰數이며, 奇數인 一·三·五·七·九는 天數로서 陽數를 의미한다. 河圖는 陰數와 陽數가 中과 四正方이 五位에 짝을 지어 배치되어 있으며 中央의 數는 五와 十으로 그 合數은 十五이다. 河圖에 표시된 數는 一에서 十까지로 天地之數가 모두 드러내고 있다. 河圖의 本體를 상징하는 中心數는 五와 十의 合數인 十五이며, 이 本體數를 중심으로 一·二·三·四와 六·七·八·九가 있는데, 내측의 원에는 一·二·三·四의 生數가 있고, 외측의 원에는 六·七·八·九의 成數가 자리하고 있다. 一에서 十까지의 天地之數를 河圖의 기본구조인 五行의 運行數로 나누어서 보면 중앙에는 本體數로서 五와 十, 四方에는 一·二·三·四와 六·七·八·九를 太少陰陽의 四象數로 나눌 수 있으니 一·九는 太陽數, 二·八은 少陰數, 三·七은 少陽數, 四·六은 太陰數로 분류한다.¹³⁾ 또한 生數와 成數의 배열이 위치적으로 각각 內外를 이루고 있으며, 太陽數一·太陰數六, 少陰數二·少陽數七, 少陽數三·少陰數八, 太陰數四·太陽數九로 太少陰陽에 따라 太는 太로 少는 少로 相合되어 있다. 따라서 五와 十을 중심으로 一·六, 二·七, 三·八, 四·九가 四位에 배속되어 있어서 五行의 構造를 이루고 있으며, 成數인 六·七·八·九는 五行에서 水火木金에 해당되며, 그 空間의 位는 四時와 四方에 배속되어 天道의 四行의 構造와 일치한다.

洛書의 數는 일정한 位에 배치되어 있으며, 基本數는 一에서 九까지의 九數로 되어 있다. 그 中央의 數는 五이며, 그 五를 中心으로 하나의 圓周圖에 九數가 배열되어 있다. 五를 중심으로 相面하는 數의 배합은 一·九, 二·八, 三·七, 四·六으로 生成數와 陰陽數(奇偶數)로 나누어 보면 生數와 成數의 결합은 이루고 있으나 陰數와 陰數, 陽數와 陽數로 이루어져 있어서 陰陽의 合德은 이루지 못하고 있다. 또한 五를 중심으로 相面한 두 數의 합은 十이며, 中央數 五를 합하면 十五가 된다.

河圖는 인간의 주체성을 상징하는 皇極數인 五와 未來의 理想 즉 完全성을 상징하는 十數 즉 十·五 本體數, 그리고 太少陰陽의 四象數인 一·二·三·四·六·七·八·九의 用數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圖象에 있어서 數의 배치는 十·五 本體數를 중심축으로 四方에 一·六, 二·七, 三·八, 四·九의 四象數가 배치되어 있다.¹⁴⁾

그러면 河圖에 나타나는 數의 성격과 구조의 역철학적 의미를 알아보기로 한다.

本體數 十·五가 中央의 같은 자리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인간본래성(五皇極)이 바로 宇宙性(十無極)임을 상징하는 것으로 河圖의 本體數 十·五는 天道의 인간주체화 원리에 의하여 드러나는 天人合德을 의미하는 것이다.

四象數의 배치는 太·少·陰·陽數가 각각 生成數로 상응 함덕되어 있으니, 이것은 完全성으로 드러나는 존재의 근원적 구조원리를 상징한 것이다. 그러므로 河圖原理에 관하여 “天數가 五요 地數가 五이니, 五位가 서로 得하며 각각 合하니 …… 이것은 변화를 완성하고 鬼神을 운행시키는 원리이다.”¹⁵⁾라고 하여 河圖의 陰陽合德原理에 의하여 存在의 完全性(未來性)이 드러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河圖의 未濟之象이란 未來의 時間性을 상징하는 主體內的 象(未來의이며 完全성을 상징하는 理想的 存在)으로서, 過去의 時間性을 뜻하는 先天太極을 지향하는 過去志向性을 갖는다. 그리고 十無極에서 倒生하여 九·八·七·六·五·四·三·二의 순서로 자라나 一太極으로 逆成하는 시간생성의 존재구조를 갖는 것으로서, “이미 지나간 과거를 헤아림은 順方向으로 이루어진다.”¹⁶⁾라 하여 河圖의 過去志向性을 나타내고 있다.¹⁷⁾

이와 같이 하도와 낙서를 수의 체용體用 관계로 설명하였다. 하도의 수는 10이고 수는 10에서 완전하므로 수의 체體이다. 낙서의 수는 9이고 수의 변화는 1에서 시작하여 9에서 끝나므로 수의 용用이다. 하도의 수는 생수를 위주로 한다. 즉 1·2·3·4·5의 생수는 6·7·8·9·10의 성수를 거느리며, 생수는 하도의 그림에서 안쪽에 있고 성수는 바깥쪽에 있다. 1과 6은 북쪽에, 2와 7은 남쪽에, 3과 8은 동쪽에, 4와 9는 서쪽에 있으므로 “같은 방향에 처한다”고 한 것이다. 낙서의 수는 흠수를 위주로 한다. 1·3·5·7·9의 흠수는 네 개의 바른 자리(四正)에 있으며 네 개의 모퉁이 자리(四維)에 있는 2·4·6·8의 짝수를 거느린다.

따라서 도서역학적 인간관과 자연관을 사방의 공간적 구조와 사시의 시간적 구조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역학적 존재원리라 할 수 있다.

다음은 황원어가 이러한 역학적 존재원리를 바탕으로 인간의 생리, 병리, 병증 등 의학이론을 적용시켜 해명한 내용을 알아보기로 한다.

10) 朱熹, 金尚燮 解說, 『易學啓蒙』, 예문서원, 1996, pp. 32-35.

11) 廖名春, 康學偉, 梁韋弦, 『周易哲學史』, 예문서원, 1995, p. 426.

12) 『周易』, 繫辭傳上, 九章, “天一 地二 地三 地四 天五 地六 天七 地八 天九 地十 天數五 地數五 五位相得 而各有合 天數 二十有五 地數 三十 凡天地之數 五十有五 此所以成變化 而行鬼神也.”

13) 朱熹, 金尚燮 譯, 『易學啓蒙』, 예문서원, 1996, 113쪽, “兩儀之上 各生一奇一耦 而爲二畫者四 是爲四象 其位則太陽一 少陰二 少陽三 太陰四 其數則太陽九 少陰八 少陽七 太陰六.”

14) 김영록, 陰陽五行思想의 存在論的 考察, 忠南大學校 大學院, 2001, pp. 52-57.

15) 『周易』, 繫辭傳上, 九章, “天數 五 地數 五 五位相得 而各有合 天數 二十有五 地數 三十 凡天地之數 五十有五 此所以成變化 而行鬼神也.”

16) 『周易』, 說卦傳, 三章, “數往者順.”

17) 南明鎮, 「第三易卦圖 出現可能性的 論理的 根據」, 『儒學研究 3 輯』, 忠南大 儒學研究所, 1995, p. 350.

2. 하도낙서의 의학적 검토

1) 하도낙서와 음양, 사상, 오행의 의미

『周易』에 五行을 언급한 곳이 없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五行思想和 易學과는 전혀 별개의 논리형식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陰陽과 五行이 사상적으로 연원을 달리하여 陰陽思想은 『周易』에서, 五行思想은 『書經』, 『洪範』에서 연원하여 본래 서로 관계없는 개념에서 근원한 것이라고 하였다.¹⁸⁾ 그렇다면 陰陽五行의 思惟의 틀이 『周易』의 논리체계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만일 역학과 음양오행의 논리가 부합되지 않는다면 醫易이론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何新과 노사광, 양계초 등 많은 현대 중국철학자들은 鄒衍의 五德終始說 以後에 五行의 系統的인 理論이 생겼다고 하였다. 이들과는 달리 黃元御는 음양과 五行이 철학사적으로 淵源을 같이하여 陰陽이 四象이며, 四象이 곧 五行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정리하여 보면 음양과 오행을 분리하여 보는 견해와 존재론적으로 같은 존재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음양과 오행을 연용하여 음양오행이라고 보는 견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五行의 개념을 木·火·土·金·水라는 현상적 의미로만 이해하면 그 본래적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다. 五行이라는 개념은 존재 자체의 자기개시의 양상으로 다섯 범주로 구분하여 객체화하여 나타난 것이 木·火·土·金·水 五行이다. 이 때 五位에 놓여지는 數의 본질을 나타내기 위하여 각 數가 갖는 본질로서의 時宜性을 객체화하여 나타난 것이 木·火·土·金·水라는 개념이다. 따라서 五行은 나무와 불 등의 물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객체화하여 나타난 다섯 가지의 기본적인 관계양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五行은 四象과는 달리 體와 用 다시 말하면 本體와 現象(原理와 作用)을 모두 포괄한 것으로 土는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본체이며, 木·火·金·水는 존재의 自己顯現을 의미한다. 즉 황원어의 오행에 대한 견해를 보면 土와 木·火·金·水는 體用的 관계로 土가 존재로서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고, 木·火·金·水는 존재 자체가 드러난 현상인 四象作用을 표상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존재를 표상하는 네 가지 범주인 四象과 그것의 축으로서 작용 근거인 體(中)를 함께 표상한 원리가 五行原理인 것이다.¹⁹⁾

『四聖心源』 「卷一 天人解 陰陽變化」에 “水、火、金、木은 四象이라 말한다. 四象은 陰陽의 升降함이며, 陰陽은 中氣가 浮沉함이다. 나누어서 말하면 四象이라 하고, 합하여 말하면 음양에 불과하다. 나누어서 말하면 음양이고, 합하여 말하면 中氣가 변화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²⁰⁾라 하여 水火金木을 四象이라 직접 규정하고, 中氣의 역할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증기에서 음양, 음양에서 사상의 논리적 선후의 인식이 태극에서 양의, 양

의에서 사상, 사상에서 팔괘라는 주역의 생성논리와 같다. 다만 황원어는 태극의 관점을 인체의 中氣의 역할이라 보고 인체의 생리병리적 기능의 축과 핵심이 中氣라는 것이다. 이때의 中氣는 李東垣의 胃氣學說의 中氣思想과는 다른 것이다.

『四聖心源』 「卷一 天人解 陰陽變化」에 “四象이 輪旋하여 一年에 두루 미친다. 陽은 歲半之前에 上升하고, 陰은 歲半之后에 下降한다. 陽之半升은 春이 되고, 全升은 夏가 된다. 陰之半降은 秋가 되고, 全降은 冬이 된다. 春生夏長은 木火之氣이므로 春溫하고 夏熱하다. 秋收와 冬藏은 金水之氣이므로 秋涼하고 冬寒하다. 土天은 專位하므로 四季之月의 各十八日을 寄旺하며, 司令之時은 六月之間에 있다. 土와 四象을 합하여 五行이라 이른다.”²¹⁾라 하여 사상과 오행의 새로운 규정을 하였다. 황원어는 철저히 역학적 사유의 음양오행사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지식기반 위에서 의학이론을 접목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황원어의 의학적 관점에서 사상과 오행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에서 五行의 構造는 존재를 표상하는 네 가지 범주인 四象과 그것의 축으로서 작용근거인 體(中)를 함께 표상한 원리가 五行原理인 것이다. 水火金木土로 상징하는 五行原理 중에서 土는 中體로써 속에 은폐되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사물적 차원에서는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四象뿐이다.²²⁾ 이러한 황원어의 사상과 오행의 개념은 기존의 내경의학적 오행개념과는 다르다. 東武 四象醫學의 太少陰陽에 대한 개념이 오히려 황원어의 개념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黃元御와 東武의 四象 개념이 易理에서 말하는 四象(太少陰陽)의 개념으로 단지 生成論的인 陰陽의 符號로서 四象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太極과 四象이라는 體用的 관계로 이해되어야 한다.

『四聖心源』 「卷四 勞傷解 陰陽」에 “中氣升降이 陰陽을 生하며, 陰陽二氣가 上下回周한다. 陰은 下에 位하여 下에서 左升하여 清陽이 되고, 陽은 上에 位하여 上에서 右降하여 濁陰이 된다. 清陽은 木火에서 生發하면 下陷에 이르지 않고, 濁陰은 金水에 收藏하면 上逆에 이르지 않는다. 清氣之 下陷은 上에서 陽嘘하고, 濁氣之不逆은 下에서 陰吸한다. 濁氣가 不逆하면 陽降而化陰하고, 陽은 下潛에 근본을 두고 있어 上飛하지 않는다. 清氣가 不陷하면 陰升而化陽하며 陰은 上秘에 근본을 두고 있어 下走하지 않는다. 彼此互根하고 上下環抱하는 것을 平人이라 한다. 清氣의 左升은 陰中之陽生에 달려 있으며, 陽生하면 浮動而親上하는데 그 權은 己土에 있다. 濁陰之 右降은 陽中之陰生에 달려 있으며, 陰生하면 沉靜而親下하는데 그 權은 戊土에 있다. 戊己의 昇降은 모두 中氣에 달려 있어 中氣一敗하면 己土가 不升하여 清陽이 下陷하고, 戊土가 不降하여 濁氣가 上逆하는데 이것이 陰虛陽虛가 유래하는 까닭이다.”²³⁾라 하여 음양, 청탁, 사상의 승강

18) 楊在鶴, 「書經洪範思想의 考察」, 忠南大學校 大學院, 1986, p. 23.

19) 김영목, 사상의학의 역철학적 기초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Vol. 21-2, 2008, p. 158.

20) 『四聖心源』 「卷一 天人解 陰陽變化」 “水、火、金、木, 是名四象. 四象即陰陽之升降, 陰陽即中氣之浮沉. 分而名之, 則曰四象, 合而言之, 不過陰陽, 分而言之, 則曰陰陽, 合而言之, 不過中氣所變化耳.”

21) 『四聖心源』 「卷一 天人解 陰陽變化」 “四象輪旋, 一年而周. 陽升于歲半之前, 陰降于歲半之后. 陽之半升則爲春, 全升則爲夏, 陰之半降則爲秋, 全降則爲冬. 春生夏長, 木火之氣也, 故春溫而夏熱. 秋收冬藏, 金水之氣也, 故秋涼而冬寒. 土天專位, 寄旺于四季之月, 各十八日, 而其司令之時, 則在六月之間. 土合四象, 是謂五行也.”

22) 김영목, 사상의학의 역철학적 기초에 관한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Vol. 21-2, 2008, p. 158.

23) 『四聖心源』 「卷四 勞傷解 陰陽」 “中氣升降, 是生陰陽, 陰陽二氣,

이 戊己中氣에 달려 있음을 말하며 中體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인체의 소통에 관한 문제이다. 이 소통의 문제는 승강 출입 즉 오름과 내림 그리고 들어옴과 나감의 운동형식과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승강출입이라는 소통과정은 동양철학의 뿌리를 가지고 형성된 한의학에서 기의 움직임(氣機)의 형식으로 드러나며, 더욱 미시적으로 장부와 장부사이의 생리병리현상으로 나타난다.²⁴⁾

『素靈微蘊』 「卷一 胎化解」에 “《關尹子》에 升이 없으면 降하지 않고 降이 없으면 升하지 않는다. 降하는 것은 水가 되고 升하는 것은 火가 된다. 《河圖》의 數를 보면 天一은 水를 生하고 地六은 그것을 成한다. 이는 陽의 動함이 極하다가 靜하면 一陰이 午에서 生하며, 陰이 盛하면 九地로 下沉하여 水가 된다. 水를 生하는 근원은 天에 있다. 地二는 火를 生하고, 天七은 그것을 成한다. 이는 陰의 靜함이 極하다가 動하면 一陽이 子에서 生한다. 陽이 盛하면 九天으로 上浮하여 火가 된다. 火를 生하는 근원은 地에 있다. 天三은 木을 生하고, 地八은 그것을 成한다. 陽은 地에서 生하고 天에 浮하지 않고 火가 되며, 左에서 먼저 升하여 木이 되고, 天을 得한 것은 親上하고, 陽動하여 左升하는 故로 天生이라 한다. 地四는 金을 生하고, 天九는 그것을 成하며, 陰은 天으로부터 生하여 地에 沈하지 않아 水가 되며, 右로 먼저 下降하여 金이 된다. 地를 得한 것은 親下하고, 陰靜하여 右降하는 故로 地生이라 한다. 먼저 物이 生한 以後에 成하기 때문에 初氣가 生해야 終氣가 成한다. 天과 地는 旋回하고 서로 生成하는 것이므로 獨陽은 生할 수 없고, 獨陰은 成할 수 없다.”²⁵⁾ 라 하였고, 또한 『素靈微蘊』 「卷一 胎化解」에 “陰陽이 구별되기 이전에 그것을 祖氣라 한다. 氣는 陰陽을 包含하니 清濁이 있다. 清한 것은 浮輕하고 善動하며, 濁한 것은 沉重하고 善靜한다. 動과 靜의 交會를 中皇이라 하고, 中皇이 運轉하여 陽中之陰이 沉靜하여 下降하고, 陰中之陽이 浮動하여 上升하며, 升하면 火를 이루고 降하면 水를 이루며, 水가 旺하면 精이 凝集되고 火가 旺하면 神이 發揚한다. 火는 南에 위치하고, 水는 北에 위치하며, 陽의 上升은 東에서 南으로 하고 東에서는 木이 되고, 陽이 東에 있는 것은 神이 未發하며, 神之陽魂이 갖추어지고, 魂이 血

에 간직되어 上升하면 神으로 변화한다. 陰의 下降은 西에서 北으로 하고, 西에서는 金이 되고, 陰이 西에 있는 것은 精이 未凝하며, 精之陰魄이 이루어지고, 魄이 氣에 간직되어 下降하면 精을 간직한다. 升降의 사이에서 黃庭이 四運하니 土 중의 뜻이 가운데에 있다. 이를 五神이라 한다. 五神이 化한 뒤에 五氣를 생하여 外衛로 삼으며, 五精을 產生하여 內守로 삼으며, 五臟을 맺어서 宮城으로 삼으며, 五官을 開竅하여 門戶로서 삼는다.”²⁶⁾ 라 하여 음양 이전에 祖氣가, 사상 이전에 음양의 개념이 있어 祖氣의 분화에 의해 음양이, 음양의 升降에 의해 四象이 이루어져 精神魂魄이 간직되고 그 가운데 黃庭이 四運한다고 하여 인간존재의 구조를 四象으로 규정하고 있다.

2) 河圖洛書와 臟象

『素靈微蘊』 「卷一 藏象解」에 “《尚書·洪范》에 木은 曲直하고, 金은 從革하고, 水는 潤下하고, 火는 炎上하고, 土는 이에 稼穡을 한다. 이것이 五行의 性이다. 曲直은 伸 것이 되고, 炎上은 伸 것이 되고, 從革은 屈한 것이 되고, 稼穡은 屈한 것이 되고, 潤下는 屈한 것이 된다. 이것이 五行의 味이다. 水는 浮해야 함이, 火는 沈해야 함이, 木은 升해야 함이, 金은 降해야 함이 마땅하고, 土는 中皇에 있어 四象轉運의 기틀이 된다. …… 水木을 升해야 하고 火金을 降해야 하는데 그 法度는 土에 있다. 土氣가 不運하면 四維가 轉運하지 않아 이것이 五味鬱生의 근본이다.”²⁷⁾ 라 하여 오행의 성격과 의미 그리고 그 지향성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러한 작용성의 기틀이 中皇인 토에 있다고 하여 상하좌우의 조절과 조화가 중토의 작용 하에 있다고 보았다. 이는 역학에서 적용되는 中正之道의 내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중정지도, 체용지도의 특성을 가진 음양, 기혈, 氣質, 精神, 魂魄, 清濁, 心腎, 升降의 특성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木火金水는 사시로 드러나는 時宜性을 표상하는 동시에 공간적 측면에서는 사방으로 드러나는 공간성을 표상한다고 하겠다. 즉 木火金水는 춘하추동의 사시가 갖는 의미인 時宜性을 나타내며, 그러한 時宜性이 만물의 생성에 있어서는 생성의 마디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春木의 時間이 갖는 의미 즉 春木의 時宜性은 始生과 發陳으로 땅속에 있던 지난해의 묵었던 씨가 지표를 뚫고 새로운 싹으로 올라오면서 始生이 이루어진

上下回周。陰位于下，而下自左升，則爲清陽，陽位于上，而上自右降，則爲濁陰。清陽生發于木火，則不至于下陷，濁陰收藏于金水，則不至于上逆。清氣之下陷者，陽嘘于上也，濁氣之不逆者，陰吸于下也。濁氣不逆，則陽降而化陰，陽根下潛而不上飛，清氣不陷，則陰升而化陽，陰根上秘而不下走。彼此互根，上下環抱，是曰平人。而清氣之左升，賴乎陰中之陽生，陽生則浮動而親上，權在己土，濁陰之右降，賴乎陽中之陰生，陰生則沉靜而親下者，權在戊土。戊己昇降，全憑中氣，中氣一敗，則己土不升而清陽下陷，戊土不降而濁氣上逆，此陰虛陽虛所由來也。”

24) 김영복 외, 몸과 소통에 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제21권 4호, 2008, p. 823.

25) 『素靈微蘊』 「卷一 胎化解」 “天地之理，動極則靜，靜極則動，靜則陰生，動則陽化，陰生則降，陽化則升。《關尹子》：無有升而不降，無有降而不升。降者爲水，升者爲火。《河圖》之數：天一生水，地六成之，此陽之動極而靜，一陰生於午也。陰盛則下沉九地而爲水，而其生水之根，則在於地。地二生火，天七成之，此陰之靜極而動，一陽生於子也。陽盛則上浮九天而爲火，而其生火之根，則在於地。天三生木，地八成之，陽自地生，未浮於天而爲火，先升於左而爲木，得乎天者親上，陽動而左升，故曰天生。地四生金，天九成之，陰自天生，未沉於地而爲水，先降於右而爲金，得乎地者親下，陰靜而右降，故曰地生。凡物先生而後成，故以初氣生而終氣成。天與地旋，相生成者，獨陽不能生，獨陰不能成也。”

26) 『素靈微蘊』 「卷一 胎化解」 “陰陽未判，是謂祖氣，氣含陰陽，則有清濁，清者浮輕而善動，濁者沉重而善靜。動靜之交，是曰中皇，中皇運轉，陽中之陰，沉靜而降，陰中之陽，浮動而升，升則成火，降則成水，水旺則精凝，火旺則神發。火位於南，水位於北，陽之升也，自東而南，在東爲木，陽之在東，神未發也，而神之陽魂已具，魂藏於血，升則化神，陰之降也，自西而北，在西爲金，陰之在西，精未凝也，而精之陰魄已成，魄藏於氣，降而生精。升降之間，黃庭四運，土中之意在焉，是曰五神。五神既化，爰生五氣，以爲外衛，產五精，以爲內守，結五臟，以爲宮城，開五官，以爲門戶。”

27) 『素靈微蘊』 「卷一 藏象解」 “《尚書·洪范》：木曰曲直，金曰從革，火曰炎上，水曰潤下，土爰稼穡，此五行之性也。曲直作酸，炎上作苦，從革作辛，稼穡作甘，潤下作咸，此五行之味也。蓋水宜浮而火宜沉，木宜升而金宜降，土居中皇，是爲四象轉運之機。潤下者，水氣之不浮也，炎上者，火氣之不沉也，直則木升，曲者，木氣之不升也，從則金降，革者，金氣之不降也，甘者，稼穡之正位，平則不見，不平則見，甘味之見者，土氣之不運也。五氣壅鬱，而後五味以生，五臟乃病。升水木而降火金，其權在土，土氣不運，則四維難轉，此五味鬱生之原也。善乎！庚桑子之言：革鬱則爲腐，樹鬱則爲蠹，人鬱則爲病。陽性動而陰性止，動則運而止則鬱，陽盛而生病者，千百之一，陰盛而生病者，盡人皆是，此凡物之大情也。”

다.28) 천지만물이 그렇기 때문에 躍動하는 생명력의 분출과 推陳出新의 의미로 비유되고, 또 그러한 성질을 曲直이라고 하고, 그것을 木이라 규정한 것이다. 夏라는 시간의 의미는 성장에 있다. 봄에 올라온 새 생명체가 번성하여 繁茂秀美로 비유되고 성장은 생명력의 확산과 다양성을 의미한다.29) 그러한 성질을 불꽃이 위로 타오르는 현상에 비유하여 火라고 규정하고 있다. 秋는 아래에서 위로의 작용, 안에서 겉으로의 작용이 방향을 바꾸어서 위에서 아래로의 작용, 밖에서 안으로의 작용으로, 量보다는 質이 변화하는 때이다.30) 다시 말하면 생명체에 있어서 화려한 꽃과 잎사귀를 벗어 던지고 열매를 맺음으로써 向外的인 作用이 向內的인 作用으로 바뀌는 때이다. 그러한 성질은 從革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從革은 그 작용의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로 그것을 金으로 상징한다. 冬는 秋에서 시작된 내면작용의 완성으로 열매를 감추어 보관하는 때로 生氣潛伏의 의미로 감추어 보관한다는 것은 다시 새 봄을 위하여 생명력을 비축한다는 것이다.31) 이러한 성질을 아래를 윤택하게 해준다는 의미인 潤下로 나타내고 있는데 曲直과 炎上이 上과 外로의 작용인 반면에 從革과 潤下는 下와 內로의 작용이다. 즉 潤下는 아래를 윤택하게 한다. 즉 살찌게 한다는 것으로 그것은 내면의 생명력을 비축하는 완성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다.32)

따라서 『素靈微蘊』 「卷一 藏象解」에 “五臟은 모두 神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心에 간직한다. 五臟은 모두 精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腎에 간직한다. 神은 陽이, 精은 陰이 된다. 土는 陰陽의 사귀에 자리한다. 魂은 陰에서 陽을 지향하여 陽盛하면 神을 生한다. 魄은 陽에서 陰을 지향하여 陰盛하면 精을 生한다. 血은 陰으로 그 가운데에 陽이 있으며, 木氣의 發散함을 얻으면 陽昇하여 氣化한다. 氣는 陽으로 그 가운데에 陰이 있으며, 金氣의 수렴함을 얻으면 陰降하여 質結한다. 陰은 濁하여 質이 있고, 陽은 淸하여 氣가 있다. 이 質을 結하면 質의 魄이 먼저 생기고, 이 氣를 化하면 氣의 魂이 먼저 나타난다. 氣의 虛靈한 것이 神이 되고, 質의 靜凝한 것이 精이 된다. 神은 淸하면서 明하고, 精은 濁하면서 暗하다.”33)라 하여 음양, 기혈, 氣質, 精神, 魂魄, 淸濁, 心腎, 升降의 사귀와 조화도 토의 역할 때문으로 태과와 불급의 한 계내에서 작용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기는 혈의 존재에 의하여

보증받고, 혈은 기의 존재에 의하여 보증받는데, 그 역할이 土의 中和作用이라는 것이다. 이는 철저한 역철학적 관점에서 인체와 자연을 해석하려는 것으로 황원어는 內經醫學의 五行觀이라기 보다는 易學的 五行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素靈微蘊』 「卷一 藏象解」에 “木氣가 過散하면 土가 不堅하므로 수렴함으로서 收氣한다. 火氣가 過熱하면 金이 不肅함으로써 聚合함으로써 藏氣한다. 土氣가 過濕하면 水가 不升하므로 發散함으로써 風氣가 된다. 金氣가 過收하면 木이 不達하므로 溫煦함으로써 熱氣가 된다. 水氣가 過潤하면 火가 不降하므로 燥濕함으로써 土氣가 된다. 水升해야 火降하고, 火降해야 金肅하며, 金肅해야 木榮하고, 木榮해야 土燥하며, 土燥해야 水升한다. 相生해야 不及함이 없고, 相剋해야 太過함이 없다. 生하면 變化의 妙함이 나타나고, 克해야 制伏의 巧함이 나타나니 또한 克함은 氣로써 하는 것이지 質로서 하지 않는다. 前인들이 五行形質에 의거하여 生과 剋을 논한 것은 거리가 멀다.”34)라 하여 水와 火의 승강의 제약과 협조를 가지고 있어 心腎의 互濟와 不交로, 火降과 金肅은 肝火와 肺陰의 제약관계로, 金肅과 木榮은 肝과 肺의 병증으로, 木榮과 土燥는 간과 비위의 병증으로, 土燥와 水升은 비와 신의 병증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상생과 상극도 또한 태과와 불급의 조화를 이루려는 토가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작용이 물질로서가 아니라 기능으로서 나타남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황원어가 일반 존재의 상생과 상극의 작용을 현상론적 즉 생성론적 측면인 사물적 차원으로만 문제를 이해한 前인들의 관점을 비판하였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인체에서 오장의 생리작용에 적용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素靈微蘊』 「卷一 藏象解」에 “胃는 降濁을 주관하여 胃逆하면 濁氣가 上填하고 倉廩이 不納하여 惡心嘔吐가 생긴다. 脾는 升淸을 주관하여 脾陷하면 淸氣가 下瘀하고 水谷이 不消하여 脹滿泄利가 나타난다. 肺는 藏氣하고 性이 下降하고, 肝은 藏血하고 性이 上升하므로 金이 逆하면 氣가 淸降하지 못하여 上郁하며, 木이 陷하면 血이 溫升하지 못하여 下脫한다. 肺는 收斂을, 肝은 疏泄을 주관하는데, 血이 升하여 流溢하지 않는 것은 肺氣의 收斂 때문이며, 氣가 降하여 固結에 이르지 않는 것은 肝血의 疏泄 때문이다. 木이 陷하면 下에서 血脫하고, 肺金이 失斂하면 血이 上溢하며, 金이 逆하면 上에서 氣郁하고, 肝木이 不升하면 氣가 下結한다. 미루어 보면 驚悸、吐衄、盜汗、遺精之病은 모두 金氣가 降斂할 수 없어서 생긴 것이고, 淋癰、泄痢、噎膈、吞酸之病은 모두 木氣가 生發할 수 없어서 생긴 것이다.”35)라 하여

28) 『黃帝內經』, 四氣調神大論, “春三月 此謂發陳 天地俱生 萬物以榮 …… 以使志生, 生而勿殺 予而勿奪 賞而勿罪 此春氣之應養生之道也.”

29) 『黃帝內經』, 四氣調神大論, “夏三月 此爲蕃秀 天地氣交 萬物華實 …… 使華英成秀 使氣得泄 若所愛在外 此夏氣之應養長之道也.”

30) 『黃帝內經』, 四氣調神大論, “秋三月 此謂容平 天氣以急 地氣以明 …… 以緩秋刑 收斂神氣 使秋氣平 無外其志 …… 此秋氣之應養收之道也.”

31) 『黃帝內經』, 四氣調神大論, “冬三月 此謂閉藏 水冰地坼 無擾乎陽 …… 使志若伏若匿 若有私意 若已有得 去寒就溫 無泄皮膚 使氣亟奪 此冬氣之應養藏之道也.”

32) 『書經』, 周書, 洪範, 二章, “水曰潤下 火曰炎上 木曰曲直 金曰從革 土爰稼穡.”

33) 『素靈微蘊』 「卷一 藏象解」 “五臟皆有神而藏之於心, 五臟皆有精而藏之於腎. 神爲陽而精爲陰, 土居陰陽之交, 魂者自陰而之陽, 陽盛則生神, 魄者自陽而之陰, 陰盛則生精. 血, 陰也, 而其中有陽, 得木氣之散, 則陽昇而氣化, 氣, 陽也, 而其中有陰, 得金氣之收, 則陰降而質結. 蓋陰濁而有質, 陽淸則有氣, 將結此質而質之魄先生, 將化此氣而氣之魂先見. 氣之虛靈者則爲神, 質之靜凝者則爲精, 神淸而明, 精濁而暗.”

34) 『素靈微蘊』 「卷一 藏象解」 “木氣過散, 則土不堅, 故斂之以收氣, 火氣過熱, 則金不肅, 故聚之以藏氣, 土氣過濕, 則水不升, 故散之以風氣, 金氣過收, 則木不達, 故溫之以熱氣, 水氣過潤, 則火不降, 故燥之以土氣. 水升則火降, 火降則金肅, 金肅則木榮, 木榮則土燥, 土燥則水升. 相生則無不及, 相剋則無太過, 生則見變化之妙, 克則見制伏之巧, 亦克以氣而不克以質也. 前入據五行形質而論生剋, 逝其遠矣.”

35) 『素靈微蘊』 「卷一 藏象解」 “胃主降濁, 胃逆則濁氣上填, 倉廩不納, 惡心嘔吐之病生焉. 脾主升淸, 脾陷則淸氣下瘀, 水谷不消, 脹滿泄利之病生焉. 肺藏氣而性降, 肝藏血而性升, 金逆則氣不清降而上郁, 木陷則血不溫升而下脫. 肺主收斂, 肝主疏泄, 血升而不至於流溢者, 賴肺氣之收斂也, 氣降而不至於固結者, 賴肝血之疏泄也. 木陷則血脫于下, 而肺金失斂, 則血上溢, 金逆則氣郁于上, 而肝木不升, 則氣下結. 推之, 凡驚悸、吐衄、盜汗、遺精之病, 皆金氣不能降斂, 淋

脾胃는 中焦에 위치하며 脾는 升清을 胃는 降濁을 主管한다. 또한 脾는 氣血生化의 根源이며 그 生理特徵은 運化와 升清이다. 또한 喜燥하고, 惡濕한다. 胃는 水穀之海로 受納과 腐熟을 主管하며 그 氣는 下降하고 喜潤惡燥한다. 脾의 性質은 燥하고, 胃의 性質은 濕하여 脾胃 生理特徵의 두 가지 면이다. 脾胃의 升清降濁이 서로 협조하는 필수조건을 갖추고 있다. 둘 사이의 승강협조관계가 燥濕平衡을 촉진하는데 脾胃의 生理機能이 바로 升과 降, 燥와 濕의 相補相成의 平衡을 기초로 하고 있다.³⁶⁾ 비위의 升清과 降濁, 肝과 肺의 清降과 溫升 그리고 疏泄과 清降의 작용이 서로 도우면서 억제한다. 이는 脾胃의 中樞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四臟과 中臟(脾)의 의미를 생리적작용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는 內經의 오장기능을 좀더 역철학적 의미로 재해석한 것으로 도서역학적 구도로 해명되고 있다.

3) 黃元御의 中氣思想

(1) 中氣와 陰陽, 四象, 溫涼水火의 관계

『中庸』에 “喜怒哀樂이 아직 發動하지 않아 마음이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는 것을 中이라고 하며, 發動하여 모두 法度에 합치하는 것을 和라고 한다. 中은 天下의 大本이며, 和는 天下의 達道이다. 그러므로 中和의 道에 이르면 天地가 바르게 位置하게 되고, 萬物은 化育된다.”³⁷⁾라고 하여 中은 주관적으로는 心性의 未發을 뜻하는 人性의 本然이다. 따라서 未發之中은 곧 본연지성을 말한다.³⁸⁾ 또한 易學에서 中正之道(中體와 四德用)의 해석과 의미로 보면 “中은 正하지 않음이 없고, 正은 반드시 中하지 않는다.”³⁹⁾라고 하여 中과 正의 의미 관계를 논의하고 있는데, 中은 正보다 근원적이어서 일이 아무리 바르더라도 時宜에 합당하지 못하면 中을 得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中이 正보다는 본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中正之道에서의 中土와 正四象의 관계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四聖心源』 「卷一 天人解 陰陽變化」에 “水、火、金、木은 四象이라 한다. 四象은 바로 陰陽之升降이며, 陰陽은 中氣之浮沉이다. 나누어서 말하면 四象이라 하고, 합하여 말하면 陰陽에 불과하며, 나누어서 말하면 음양이라 하고, 합하여 말하면 中氣가 변화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⁴⁰⁾라 하여 陰陽, 四象의 변화는 中氣의 升降 運動이라 하여 자연과 인간의 생리병리적 변화는 中氣의 작용이 축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 中氣의 운동 규율은 『四聖心源』 「卷一 天人解 陰陽變化」에 “樞軸運動에 清氣는 左旋하여 升而化火하고, 濁氣는 右轉하여 降而化水한다. 化火하면 熱하고, 化水하면 寒한다. 方이 半升하여 아직 火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木이라 한다. 木之氣가 溫하여 升而不已하여 積溫

하면 熱을 이루어 火를 生化한다. 方이 半降하여 아직 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金이라 한다. 金之氣가 涼하여 降而不已하여 積涼하면 寒을 이루어 水를 生化한다.”⁴¹⁾라 하여 中氣의 작용 정도에 따라 四象, 寒熱溫涼이 나누어진다고 하였다.

(2) 中氣와 五臟의 관계

『四聖心源』 「卷一 天人解 臟腑生成」에 “인간과 천지는 서로 참여한다. 陰陽의 肇基에 祖氣가 있는데, 祖氣는 人身의 太極이다. 祖氣가 初凝할때에 美惡가 나누어지는바 清濁純雜이一致하지 않고, 厚薄完缺이 또한 同倫이 아니므로 後日의 靈蠢壽夭, 貴賤貧富가 모두 이것 때문에 나뉜다. 生初에 命이 탄다고 말하는 바이다. 祖氣之內에 陰陽을 含抱하고, 陰陽之間을 中氣라 한다. 中은 土이며, 土는 戊己로 나누어지고, 中氣가 左旋하면 己土가 되고, 中氣가 右轉하면 戊土가 된다. 戊土는 胃, 己土는 脾가 된다. 己土가 上行하면 陰이 升하여 陽으로 化하고, 陽이 左에서 昇하여 肝이 되고, 上으로 升하여 心이 된다. 戊土가 下行하면 陽이 降하여 陰으로 化하고, 陰이 右로 降하면 肺가 되고, 下로 降하면 腎이 된다. 肝은 屬木, 心은 屬火, 肺는 屬金, 腎은 屬水한다. 이것이 인간의 五行이다. 五行 中에 각각 陰陽이 있고, 陰은 五臟을, 陽은 六腑를 生한다. 腎은 癸水, 膀胱은 壬水, 心은 丁火, 小腸은 丙火, 肝은 乙木, 膽은 甲木, 肺는 辛金, 大腸은 庚金이다. 五行은 각각 하나이나 火는 君과 相으로 나뉜다. 臟은 心主相火의 陰이 있고, 腑는 三焦相火의 陽이 있다.”⁴²⁾라 하여 음양 분화 이전의 본체를 祖氣라 하고, 이 祖氣가 바로 인체의 태극으로 궁극적이면서 始原的 존재를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中氣라 한다. 따라서 陰陽之間에 中氣가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中氣에 의해서 四臟이 이루어진다. 이 中氣가 脾胃의 戊己土로서 陽戊土와 陰己土로서 이 두 陰陽土의 승강작용에 의하여 四臟의 생리 기능이 유지되는 것이다.

또한 『四聖心源』 「卷一 天人解 氣血原本」에 “肝은 藏血하고, 肺는 藏氣하며, 氣는 胃에서 근원하고, 血은 脾에 근본한다. 脾土가 左旋하여 生發함이 通暢하기 때문에 溫暖하여 乙木을 生한다. 胃土는 右轉하여 收斂함이 政行하기 때문에 清涼하여 辛金을 生化한다. 午半에 陰이 生하는데 陰이 生하면 下降하며, 三陰이 右降하면 肺金이 된다. 肺金은 바로 心火가 清降한 것이기 때문에 肺氣는 清涼하고 그 性은 收斂한다. 子半은 陽이 生하는데 陽이 生하면 上升하는데 三陽이 左升하면 肝木이 된다. 肝木은 바로 腎水가 溫升한 것이기 때문에 肝血은 溫暖하고 그 性

瘥、泄痢、痾瀉、吞酸之病，皆木氣不能生發。”
 36) 김영목 외, 몸과 소름에 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제21권 4호, 2008, p. 828.
 37) 『中庸』 「一章」,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中也者 天下之大本也 和也者 天下之達道也 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
 38) 尹絲淳, 『退溪哲學의 研究』, 高麗大學校出版部, 1995, p. 130.
 39) 『朱子語類』 「五、卷第六十七, 易三、綱領下」, 1667~1668쪽, “伊川云 中無不正, 正未必中, …… 中重於正, 正未必中. 蓋事之斟酌得宜合理處便時中, 則未有不正者. 若事雖正, 而處之不合時宜, 於理無所當, 則雖正而不合乎中. 此中未有不正, 而正未必中也.”
 40) 『四聖心源』 「卷一 天人解 陰陽變化」 “水、火、金、木, 是名四象. 四象即陰陽之升降, 陰陽即中氣之浮沉. 分而名之, 則曰四象, 合而言之, 不過陰陽, 分而言之, 則曰陰陽, 合而言之, 不過中氣所變化耳.”

41) 『四聖心源』 「卷一 天人解 陰陽變化」 “樞軸運動, 清氣左旋, 升而化火, 濁氣右轉, 降而化水. 化火則熱, 化水則寒. 方其半升, 未成火也, 名之曰木. 木之氣溫, 升而不已, 積溫成熱, 而化火矣. 方其半降, 未成水也, 名之曰金. 金之氣涼, 降而不已, 積涼成寒, 而化水矣.”
 42) 『四聖心源』 「卷一 天人解 臟腑生成」 “人與天地相參也. 陰陽肇基, 爰有祖氣, 祖氣者, 人身之太極也. 祖氣初凝, 美惡攸分, 清濁純雜, 是不一致, 厚薄完缺, 亦非同倫, 後日之靈蠢壽夭, 貴賤貧富, 悉於此判, 所謂命乘於生初也. 祖氣之內, 含抱陰陽, 陰陽之間, 是謂中氣. 中者, 土也, 土分戊己, 中氣左旋, 則爲己土, 中氣右轉, 則爲戊土. 戊土爲胃, 己土爲脾. 己土上行, 陰升而化陽, 陽昇於左, 則爲肝, 升於上, 則爲心. 戊土下行, 陽降而化陰, 陰降於右, 則爲肺, 降於下, 則爲腎. 肝屬木而心屬火, 肺屬金而腎屬水. 是人之五行也. 五行之中, 各有陰陽, 陰生五臟, 陽生六腑. 腎爲癸水, 膀胱爲壬水, 心爲丁火, 小腸爲丙火, 肝爲乙木, 膽爲甲木, 肺爲辛金, 大腸爲庚金. 五行各一, 而火分君相, 臟有心主相火之陰, 腑有三焦相火之陽也.”

은 생發한다. 腎水는 溫升하여 木으로 化한 것은 己土가 左旋한
때문으로 그래서 脾가 生血의 本이 된다. 心火가 清降하여 金으로
化하는 것은 戊土가 右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胃가 化氣의
根原이 된다.”라 하여 金木의 肝肺는 脾胃의 升降과 心腎의 清降
과 溫升하여 化한 것으로 肝血은 溫暖하고 그 性은 生發하고, 肺
氣는 清涼하고 그 性은 收斂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이것 또한 비
위가 중심이 되어 간폐와 심신의 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금목과 수화의 병리적 특성인 수화의 불교와 금목의 승
강실조로 나타난다.

이에 『四聖心源』 「卷一 天人解 五味根原」에 “金木은 水
火가 升降하는 연유이다. 木이 直하면 腎水가 木을 따라 左升하
고, 金이 從하면 心火가 金을 따라 右降한다. 木이 曲하여 直하지
않기 때문에 腎水가 下潤하고, 金이 革하고 從하지 않기 때문에
心火가 上炎한다. 水火交濟와 金木升降의 權度가 모두 土에 달려
있다. 土는 水火金木의 中氣로서 左旋하면 木火로 化生하고, 右
轉하면 金水로 化生되어 실제로 四象의 父母이다. 不苦, 不鹹, 不
酸, 不辛하므로 味가 甘한 것이다. 己土가 不升하면 水木이 下陷
하여 酸鹹을 만들고, 戊土가 不降하면 火金이 上逆하여 苦辛을
만든다. 土는 五味를 주관하기 때문에 四象의 酸苦辛鹹은 모두
土氣가 中郁한 것이다.”⁴³⁾라 하여 水火交濟와 金木升降의 權度
가 모두 土에 달려 있어 土는 水火金木의 中氣로서 四象의 父母
라 하였다.

또한 『四聖心源』 「卷一 天人解 五情緣起」에 “己土가 東
에서 升하면 木火가 生長하고, 戊土가 西에서 下降하면 金水가
收藏하며, 生長하면 喜怒가 되고, 收藏하면 悲恐이 된다. 輪樞가
運轉하지 않고 升降이 失職하여 喜怒가 生하지 않고 悲恐이 일
어나지 않으면 土氣가 凝滯하여 憂思가 생긴다.”⁴⁴⁾라 하여 七情
과 中土의 關係를 언급하여 인간의 心性이 心의 神志作用이 중
심이 되지만 황원어는 심성 중심의 관점보다는 비위 중심의 七
情觀을 가지고 있다. 이는 기존의 심토 중심의 사유에서 비토 중
심의 의학관으로 옮겨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제마의 사상
의학과 황원어의 도서역학적 醫學觀에서 土를 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脾로 볼 것인가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제마는 토를 유
학의 심성론적 심으로 보고 있지만 황원어는 토를 인체의 實存
的 脾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서로
가지고 있지만 두 醫家의 견해는 다름을 알 수 있다. 이 두 醫家
의 견해를 보면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脾胃戊己와 燥濕 그리고 陰陽水火의 상관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四聖心源』 「卷二 六氣偏見」에 “中氣가 旺하면 戊己가
轉運하여 土가 和하고, 中氣가 衰하면 脾胃가 濕盛하여 運化하지

않는다. 土는 火에서 生하여 水를 消滅하며, 土가 燥하면 水를 克
하며, 土가 濕하면 水氣가 泛濫하고, 水는 土를 侮하고 火를 消滅
한다. 水가 泛하고 土가 濕하여 木氣가 達하지 않으면 生意가 盤
塞되어 土를 賊傷하여 火를 生하여 土를 培育할 수 없다. 이것은
土氣가 困敗하기 때문이다. 血은 肝에 貯藏하고 脾에서 生化하는
데 太陰의 土가 燥하면 肝血이 枯하고 膽火가 炎하여 病이 발생
한다. 그러나 足太陰脾는 濕土가 主승이고, 足陽明胃가 燥金을
따라서 化氣하는데 濕은 本氣가 되고, 燥는 化氣가 된다. 그래서
燥氣는 濕氣의 旺盛함에 대적할 수 없다. 陰은 쉽게 盛할 수 있
고, 陽은 쉽게 衰할 수 있다. 土燥하여 病이 되는 것은 陽明傷寒
의 承氣証을 제외하고는 나타나지 않고, 內傷雜病과 外感傷寒은
모두 土濕 때문에 병이 된다.”⁴⁵⁾라 하여 중기인 土의 盛과 衰에
의하여 燥와 濕이 나타남을 말하고 있다. 이는 葉天士가 脾胃를
나누어서 논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같다. 『臨証指南醫案』
「卷二 脾胃」에 “胃는 戊土에 속하고, 脾는 己土에 속하며, 戊
는 陽이고, 己는 陰이다. 陰陽의 性질의 차이가 있는데, 脾는 마
땅히 藏하고, 胃는 마땅히 通하게 하고, 臟腑의 體用은 각각 다르
다. 만약 脾陽이 不足하고 胃에 寒濕이 있으면 一臟一腑 모두 마
땅히 溫燥升運하도록 하는 東垣의 治법을 삼가 존중해야 한다.
만약 脾陽이 虧損되지 아니하고 胃에 燥火가 있으면 마땅히 濕
씨의 養胃陰의 治법을 따라야 한다. 그 입문에서 말하는 바를 살
펴보면 納食은 胃가 主하고, 運化는 脾가 主하며, 脾는 마땅히 升
하면 健한 것이고, 胃는 마땅히 降하여 和로운 것이다. 또한 말하
길 太陰濕土는 陽을 얻어야 運하기 시작하고, 陽明燥土는 陰을
얻어야 스스로 평안하니, 脾는 剛燥한 것을 좋아하고, 胃는 柔潤
한 것을 좋아한다. 張仲景의 急下하여 津液을 보존하는 방법은
胃를 치료함에 있고, 東垣의 양기를 크게 승함은 脾를 치료함에
있다.”⁴⁶⁾라 하여 脾陽과 胃陰을 구별하여 치료하는 것을 중시하
였다. 이와 같이 脾의 생리기능은 脾氣上升을, 胃의 생리기능은
胃氣下降을 기본으로 하여 脾와 胃의 생리기능이 비록 분별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合作하여 平衡을 이루는데 있다. 動態平衡의
입장에서 보면 脾氣가 上升해야 胃氣가 下降하고 胃氣가 下降하
야 脾氣가 上升하는 것으로 둘 사이의 생리적 相合과 抑制作用
을 통하여 각자의 升降機能을 완성할 수 있다.⁴⁷⁾

또한 『醫學求是』 「血證求原論」에도 “水木의 상승과 火
金의 하강은 반드시 脾胃의 轉旋에 의지한다. 土는 中에 위치하
며, 脾는 陰土로 上升을 주관하고, 胃는 陽土로서 下降을 주관하

43) 『四聖心源』 「卷一 天人解 五味根原」. “金木者, 水火所由以升降也. 木直則腎水隨木而左升, 金從則心火隨金而右降. 木曲而不直, 故腎水下潤, 金革而不從, 故心火上炎. 而交濟水火, 升降金木之權, 總在于土. 土者, 水火金木之中氣, 左旋則化木火, 右轉則化金水, 實四象之父母也. 不苦, 不鹹, 不酸, 不辛, 是以味甘. 己土不升, 則水木下陷, 而作酸鹹, 戊土不降, 則火金上逆, 而作苦辛. 緣土主五味, 四象之酸苦辛鹹, 皆土氣之中郁也.”

44) 『四聖心源』 「卷一 天人解 五情緣起」. “己土東升, 則木火生長, 戊土西降, 則金水收藏, 生長則爲喜怒, 收藏則爲悲恐. 若輪樞莫運, 升降失職, 喜怒不生, 悲恐弗作, 則土氣凝滯, 而生憂思.”

45) 『四聖心源』 「卷二 六氣偏見」. “中氣旺則戊己轉運而土和, 中氣衰則脾胃濕盛而不運. 土生于火而火滅于水, 土燥則克水, 土濕則水氣泛濫, 侮土而滅火. 水泛土濕, 木氣不達, 則生意盤塞, 但能賊土, 不能生火以培土. 此土氣所以困敗也. 血藏于肝而化于脾, 太陰土燥, 則肝血枯而膽火炎, 未嘗不病. 但足太陰脾以濕土主令, 足陽明胃從燥金化氣, 濕爲本氣而燥爲化氣, 是以燥氣不敵濕氣之旺. 陰易盛而陽易衰, 土燥爲病者, 除陽明傷寒承氣証外不多見, 一切內外感傷雜病, 盡緣土濕也.”

46) 『臨証指南醫案』 「卷二 脾胃」. “今觀叶氏之書. 始知脾胃當分析而論. 蓋胃屬戊土, 脾屬己土. 戊陽己陰. 陰陽之性有別也. 臟宜藏. 腑宜通. 臟腑之體用各殊也. 若脾陽不足. 胃有寒濕. 一臟一腑. 皆宜于溫燥升運者. 自當格遵東垣之法. 若脾陽不虧. 胃有燥火. 則當遵叶氏養胃陰之法. 觀其立論云. 納食主胃. 運化主脾. 脾宜升則健. 胃宜降則和. 又云. 太陰濕土. 得陽始運. 陽明陽土. 得陰自安. 以脾喜剛燥. 胃喜柔潤也. 仲景急下存津. 其治在胃. 東垣大升陽氣. 其治在脾.”

47) 김영목 외, 몸과 소통에 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제21권 4호, 2008, p. 828.

여 中氣의 운행이 사실 四象의 父母가 된다.”⁴⁸⁾라 하여 비위가 四象의 부모 즉 體土 用四象의 體用原理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상에서 보면 황원어의 의학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중기사상에 의한 인간생리관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철학 중에서도 역학이나 유학사상에서 中의 의미를 강조하였듯이 黃의 의학사상도 중기의 중요성을 저서의 내용 여러 곳에서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인체의 中이 오장 중에서 어디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비인가 심인가? 황은 비위가 중이라 하지만 이제마의 사상학이나 심성 우위론자를 보면 심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다만 본고에서는 中의 五臟配屬의 논란은 論外로 하기로 한다.

(3) 中氣와 脾胃의 관계

中氣와 脾胃의 속성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四聖心源』 「卷四 勞傷解 中氣」에 “脾는 己土가 되고, 太陰으로 上升을 주관하고, 胃는 戊土이며 陽明으로서 下降을 주관한다. 升降의 법칙은 陰陽의 交濟에서 中氣라 이른다. 胃는 受盛을, 脾는 運化를 주관하여 中氣가 왕성하면 胃는 下降하고 善納하며, 脾는 上升하고 善磨하며, 水穀이 腐熟하여 精氣가 滋生하니 병이 발생하지 않는다. 脾가 상승하면 肝과 腎도 또한 上升하기 때문에 水火가 鬱滯되지 않고, 胃가 下降하면 心과 肺 또한 下降하여 金水가 阻滯되지 않는다. 火가 하강하면 水가 下寒하지 않고, 水가 상승하면 火가 上熱하지 않는다. 보통 사람이 아래가 따뜻하고 위가 차가운 것은 中氣가 善運한 것이다.”⁴⁹⁾라 하여 비위의 상승과 하강, 운화와 수납, 간신과 심폐의 승강 등을 주관하는 轉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四聖心源』 「卷四 勞傷解 中氣」에 “中氣가 衰하면 升降이 막혀서 腎水가 下寒하여 精病이 발생하고, 心火上炎하여 神病이 발생하고, 肝木이 左鬱하여 血病이 생기고, 肺金이 右滯하여 氣病이 생긴다. 神病은 驚怯, 不寧하고, 精病은 遺泄不秘하고, 血病은 凝瘀而不流하고, 氣病은 痞塞而不宣한다. 四維의 病은 모두 中氣 때문이다. 中氣는 水火를 和濟하는 기틀이며, 金木을 升降하는 축이다. 그래서 道家에서는 黃婆라 부른다.”⁵⁰⁾라 하여 中氣의 衰敗에 의하여 肝木의 鬱結과 肺金의 鬱滯가 발생한다. 이는 모두 水火和濟와 金木升降의 軸인 中氣의 升降失調로 인한다고 하였다.

또한 『四聖心源』 「卷四 勞傷解 中氣」에 “胃는 降濁을, 脾는 升清을 주관하는데, 濕은 中氣가 不運하여 升降이 反作하면 清陽이 下降하고 濁陰이 上逆하는데 사람의 衰老病死가 이것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다. 故로 醫家の 藥 중에 으뜸이 中

氣에 있다. 中氣는 戊己土의 交濟에 있으며, 土는 火에서 생기고 火는 水에 의해 없어진다. 火가 盛하면 土가 燥하고, 水가 盛하면 土가 濕하니 瀉水補火, 扶陽抑陰은 中氣로 하여금 輪轉하게 하고, 清濁이 다시 자리하니 病을 물리쳐서 延年하는 치법으로 이것 보다 묘한 것은 없다.”⁵¹⁾라 하여 중기의 不運으로 승강반작이 일어나는 것이 發病의 근원으로 여겼으며, 비위의 중기작용이 醫家の 藥 중에 으뜸이라 하였고, 또한 치병과 장수의 비결로 생각하였다.

또한 脾胃의 燥와 濕의 相關關係에서 서로 협조와 제약하여 中氣의 運化가 이루어진다. 『素靈微蘊』 「卷三 脾胃解」에 “脾는 太陰濕土로서 陽明의 燥가 太陰의 濕을 相濟하기에 足하면 脾陽이 昇運하여 水谷이 消磨하며, 濕旺하고 燥衰하여 中氣가 運化하지 못하면 多食을 消化할 수 없기 때문에 泄利의 병이 생긴다. 肉食은 더욱 消磨하기 어렵고, 때가 지나도 宿食이 있어서 胃氣를 손상하여 飲食不思한다. 大糲를 먹었을 때 熱이 발생하는 것은 甘緩한 藥性이 中氣를 善滯하며, 土가 滯하면 脾가 下陷하고 胃가 上逆한다. 胃가 逆하면 甲木이 下降하지 않고 相火가 上炎하여 熱을 발생하니 大糲의 藥性이 熱하기때문이 아니다.”⁵²⁾라 하여 脾의 濕은 胃의 燥에 의해, 胃의 燥는 脾의 濕에 의해 평형을 유지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不調하면 胃의 上逆과 脾의 下陷이 일어난다. 脾의 下陷으로 泄瀉, 下垂 등의 질병이, 胃의 上逆으로 嘔吐, 惡心, 脹滿 등의 병증이 나타난다. 이는 모두 中氣의 燥濕平衡이 깨진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四聖心源』 「卷二 六氣偏見」에 “胃는 降濁을 주관하고, 胃가 上逆하면 濁氣가 上填하고 倉廩이 不納하여 惡心, 嘔吐의 병이 생긴다. 脾는 升清을 주관하는데 脾가 下陷하면 清氣가 下瘀하고, 水谷이 不消하여 脹滿泄利의 병이 생긴다. 肺는 氣를 간직하고 性이 下降하며, 肝은 血을 藏하고 性이 上升하며, 金이 逆하면 氣가 清降하지 않고 上郁하며, 木이 下陷하면 血이 溫升하지 못하여 下脫한다. 肺는 收斂을 주관하며, 肝은 疏泄을 주관하여 血이 升하되 流溢에 이르지 않는 것은 肺氣의 收斂 때문

48) 『醫學求是』 「血證求原論」 “然水木之升, 火金之降, 必賴脾胃之轉旋. 皆土位于中, 脾爲陰土而主升, 胃爲陽土而主降, 脾升胃降, 卽中氣之運行, 實爲四象之父母也.”
 49) 『四聖心源』 「卷四 勞傷解 中氣」 “脾爲己土, 以太陰而主升, 胃爲戊土, 以陽明而主降, 升降之權, 則在陰陽之交, 是謂中氣. 胃主受盛, 脾主消化, 中氣旺則胃降而善納, 脾升而善磨, 水谷腐熟, 精氣滋生, 所以無病. 脾升則腎肝亦升, 故水木不郁, 胃降則心肺亦降, 金火不滯. 火降則水不下寒, 水升則火不上熱. 平人下溫而上清者, 以中氣之善運也.”
 50) 『四聖心源』 「卷四 勞傷解 中氣」 “中氣衰則升降窒, 腎水下寒而精病, 心火上炎而神病, 肝木左郁而血病, 肺金右滯而氣病. 神病則驚怯而不寧, 精病則遺泄而不秘, 血病則凝瘀而不流, 氣病則痞塞而不宣. 四維之病, 悉因于中氣. 中氣者, 和濟水火之機, 升降金木之軸, 道家謂之黃婆.”

51) 『四聖心源』 「卷四 勞傷解 中氣」 “胃主降濁, 脾主升清, 濕則中氣不運, 升降反作, 清陽下陷, 濁陰上逆, 人之衰老病死, 莫不由此. 以故醫家之藥, 首在中氣. 中氣在二土之交, 土生于火而火死于水, 火盛則土燥, 水盛則土濕. 瀉水補火, 扶陽抑陰, 使中氣輪轉, 清濁復位, 卻病延年之法, 莫妙于此矣.”
 52) 『素靈微蘊』 「卷三 脾胃解」 “脾爲太陰濕土, 陽明之燥足以濟太陰之濕, 則脾陽昇運, 水谷消磨, 濕旺燥衰, 中氣莫運, 多食不能消化, 故病泄利. 肉食更難消磨, 過時陳宿, 反傷胃氣, 是以不思食. 食糲生熱者, 甘緩之性, 善滯中氣, 土滯則脾陷而胃逆, 胃逆而甲木不降, 相火上炎, 是以生熱, 非大糲之性熱也.”
 53) 『四聖心源』 「卷二 六氣偏見」 “胃主降濁, 胃逆則濁氣上填, 倉廩不納, 惡心嘔吐之病生焉. 脾主升清, 脾陷則清氣下瘀, 水谷不消, 脹滿泄利之病生焉. 肺藏氣而性降, 肝藏血而性升, 金逆則氣不清降而上郁, 木陷則血不溫升而下脫. 肺主收斂, 肝主疏泄, 血升而不至于流溢者, 賴肺氣之收斂也, 氣降而不至于固結者, 賴肝血之疏泄也. 木陷則血脫于下, 而肺金失斂, 則血上溢, 金逆則氣郁于上, 而肝木不升, 則氣下結. 推之, 凡驚悸、吐衄、盜汗、遺精之病, 皆金氣不能降斂, 淋瀝、泄痢、噎膈、吞酸之病, 皆木氣不能生發.”
 54) 『素靈微蘊』 「卷三 脾胃解」 “前悉腰痛一證, 已獲康愈, 今又因飲酒動濕, 脾土鬱陷, 肝氣抑遏, 盤塞腎部, 而生痛楚. 腎位於腰, 爲肝之母, 子氣不能生髮, 是以腰痛也. 誤服八味, 助其土濕, 木氣更遏, 是以痛劇. 張景岳之左歸飲, 服之脾濕愈滋, 木鬱風生, 而成燥熱. 歸地、槭、芎, 寒濕敗脾, 木鬱作泄, 泄後鬱熱清利, 是以微差, 而肝氣益陷, 故痛移左跨, 實明減而暗增, 非藥效也.”

이다. 氣가 降하여 固結에 이르지 않는 것은 肝血의 疏泄 때문이다. 木이 陷하면 下에서 血脫하고 肺金이 收斂하지 않으면 血이 上溢한다. 金이 逆하면 上에서 氣郁하며 肝木이 不升하면 氣가 下結한다. 미루어보면 驚悸, 吐衄, 盜汗, 遺精의 병은 모두 金氣가 降斂할 수 없기 때문이고, 淋瀝, 泄痢, 噎腐, 吞酸의 병은 모두 木氣가 生發할 수 없기 때문이다.⁵³⁾라 하였다.

일반적으로 요통의 증상에서도 中氣의 燥濕平衡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素靈微蘊』 「卷三 脾胃解」에 “이전에 腰痛의 증상이 있었는데 이미 다 나왔다. 지금 飲酒로 動濕하여 脾土가 鬱陷하고, 肝氣가 抑遏되어 腎部를 盤塞하여 痛楚가 나타났다. 腎은 腰에 위치하고 肝의 母가 되어 子氣가 生發할 수 없어 腰痛이 발생한다. 八味를 誤服하여 土濕을 助長하면 木氣가 더욱 阻遏하여 痛劇하게 된다. 張景岳의 左歸飲을 복용하면 脾濕이 더욱 甚해지고, 木鬱하여 風이 발생하여 燥熱이 생긴다. 當歸, 地黃, 梔子, 黃芩은 寒濕하여 脾陽을 損敗시키고 木이 鬱하여 泄을 일으킨다. 泄瀉 후에 鬱熱이 淸利되어 조금 낫지만 肝氣가 더욱 陷沒되어 痛症이 左勝로 움직여서 실제로는 明減이나 暗增으로 藥效가 아니다.”⁵⁴⁾라 하여 습으로 인한 腰痛에 八味를 誤服하여 土濕을 조장하거나, 左歸飲이나 當歸, 地黃, 梔子, 黃芩은 寒濕으로 인해서 脾陽을 損敗시켜 요통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 이것도 또한 土濕의 過亢으로 인한 요통증상에 미치는 영향으로 中氣의 燥濕調和의 기능을 강조한 醫論이다.

결 론

본 연구는 황원어의 의학사상을 역학적으로 해명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래 역학은 고대 이래 동양학의 모든 분야의 근본문제로 자리하고 있다. 張介賓, 章楠, 朱震亨 등 많은 儒醫들의 의학에서 易學과 儒學의 영향은 그들의 醫說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황원어는 거의 모든 의학이론과 임상내용에서 역학 특히 圖書易을 근간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역학적 의학관을 가진 황원어의 의학사상을 도서역학적으로 탐구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 저자는 황원어의 의학사상의 독특한 점이라 할 수 있는 내경의학 전통의 기존의학과 황원어의 역의학의 다른 점, 黃元御와 李濟馬의 의학이론의 공통점, 하도와 낙서의 도서역학에서 차용한 황원어의 이학이론, 역학적 의학관의 배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다음과 같이 결론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황원어의 오행에 대한 관점은 土와 木·火·金·水는 體用의 관계로 土가 존재로서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고, 木·火·金·水는 존재 자체가 드러난 현상인 四象作用을 표상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東武 四象醫學의 太少陰陽에 대한 개념이 오히려 황원어의 개념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黃元御와 東武의 四象개념이 易理에서 말하는 四象(太少陰陽)의 개념으로 단지 生成論의 陰陽的 符號로서 四象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太極과 四象이라는 體用的 관계로 이해되어야 한다.

역철학적 관점에서 인체와 자연을 해석하려는 것으로 황원어는 內經醫學의 五行觀이라기 보다는 易學的 五行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水、火、金、木은 四象이라 하여 합하여 말하면 陰陽에 불과하며, 나누어서 말하면 음양이라 하고, 합하여 말하면 中氣가 변화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 하여 陰陽, 四象의 변화는 中氣의 升降運動이라 하여 자연과 인간의 생리병리적 변화는 中氣의 작용이 축을 이룬다는 것이다.

음양 분화이전의 본체를 祖氣라 하고, 이 祖氣가 바로 인체의 태극으로 궁극적이면서 始原의 존재를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中氣라 한다. 이 中氣에 의해서 四臟이 이루어진다. 이 中氣가 脾胃의 戊己土인 陽戊土와 陰己土로서 이 두 陰陽土의 승강작용에 의하여 四臟의 생리기능이 유지되는 것이다.

土는 水火金木의 中氣로서 左旋하면 木火로 化生하고, 右轉하면 金水로 化生되어 실제로 四象의 父母라 하여 水火交濟와 金木升降의 權度가 모두 土에 달려 있어 土는 水火金木의 中氣로서 四象의 父母라 하였다.

七情과 中土의 관계를 언급하여 인간의 心性이 心의 神志作用이 중심이 되지만 황원어는 심성 중심의 관점보다는 비위 중심의 七情觀을 가지고 있다. 이는 기존의 심토 중심의 사유에서 비토 중심의 의학관으로 옮겨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제마의 사상학과 황원어의 도서역학적 醫學觀에서 土를 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脾로 볼 것인가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인체의 中이 오장 중에서 어디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비인가 심인가? 황원어는 脾胃가 中이라 하지만 李濟馬의 四象醫學이나 심성 우위론자를 보면 心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08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하여 수행됨.

참고문헌

1. 周易.
2. 書經.
3. 中庸.
4. 朱熹. 朱子語類. 中華書局, 1999.
5. 黃帝內經. 中華醫典CDROM.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6. 中國醫籍考. 中華醫典CDROM.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7. 類經圖翼. 中華醫典CDROM.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8. 醫學讀書志. 中華醫典CDROM.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9. 四聖心源. 中華醫典CDROM.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0. 素靈微蘊. 中華醫典CDROM.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1. 素問懸解. 中華醫典CDROM.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2. 臨証指南醫案. 中華醫典CDROM.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3. 醫學求是. 中華醫典CDROM.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14. 홍원식 편저. 『중국의학사』. 동양의학연구원, 서울, p 298, 1984.
15. 尹絲淳. 『退溪哲學의 研究』. 高麗大學校出版部, p 130, 1995.

16. 朱熹. 金尚燮 解說. 『易學啓蒙』. 예문서원, pp 32-35, 1996.
17. 廖名春, 康學偉, 梁韋弦. 『周易哲學史』. 예문서원, p 426, 1995.
18. 楊在鶴. 書經洪範思想의 考察. 忠南大學校 大學院, p 23, 1986.
19. 董光璧. 제3회 국제역학 학술대회 주제 : 역학과 현대문명. 21世紀的易學與科學, 한국주역학회, 국제역학연합회, pp 1-17, 2007.
20. 柳南相. 正易의 圖書象數原理에 觀한 研究. 忠南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論文集 第Ⅶ卷 2號, p 186, 1981.
21. 南明鎭. 第三易卦圖 出現可能性의 論理的 根據. 『儒學研究 3輯』, 忠南大 儒學研究所, p 350, 1995.
22. 김영목. 음양오행사상의 존재론적 고찰, 충남대학교 대학원, pp 52-57, 2001.
23. 김영목 외. 몸과 소통에 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1(4):823, 2008.
24. 김영목. 사상의학의 역철학적 기초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 원전학회지 21(2):158, 2008.